

## 목 차

---

사용 설명서 & 학습 플래너	4
<b>PART 1 기초 — 결속구조 &amp; T-R 압착</b>	<b>8</b>
Unit 00-A 결속구조 4대 장치	8
Unit 00-B T-R 압착 훈련	14
<b>PART 2 필수 브리핑</b>	<b>24</b>
Unit 01 과정·단계형	34
Unit 02 구성요소 분석형	49
Unit 03 대립형	64
Unit 04 역사적 변천형	79
Unit 05 문제해결형	94
Unit 06 원리·응용형	109
Unit 07 전제·확장형	124
Unit 08 다각적 관점 통합형	139
Unit 09 복합 도면	154
Unit 10 변형 도면	179
<b>PART 3 Final Test</b>	<b>195</b>
Final Test 01 표준 (20분)	195
Final Test 02 변형 (20분)	215

---

# 사용 설명서

이 워크북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이 워크북의 구조

이 워크북은 《비문학독해공학》 본책의 실전 훈련 도구다. 본책이 이론과 공정을 설명한다면, 워크북은 그 공정을 몸에 새기는 반복 훈련장이다.

각 Unit 구성: 개념 요약 → 지문 세트(A·B·C) → 문제·정답·해설

## 5단계 학습 공정

1단계 본책 해당 챕터 읽기 (이론 인풋)

2단계 워크북 개념 요약 카드 확인 (압축 복습)

3단계 시간 미측정으로 지문+문제 풀기 (공정 내면화)

4단계 오답 선지에 파괴 원리 기호 표시 ( $\leftrightarrow$ / $\neq$ //)

5단계 동일 지문 시간 측정 재풀이 (속도 훈련)

## 오답 표시 기호 (반드시 사용하라)

$\leftrightarrow$  T-R 엔진 왜곡 (화살표 역전)

$\neq$  범주·앵커링 침범 (성벽 허물기)

// 결속구조 단절 (사슬 끊기)

? 잉여 부품 (지문에 없는 내용)

## 4주 속성 플래너 (주 4일 기준)

---

### 1주차

Day 1	본책 1~2장 + Unit 00-A (결속구조 4대 장치)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2	본책 3~4장 + Unit 00-B (T-R 압착)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3	본책 5~6장 + Unit 01 (과정·단계형)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4	Unit 02 (구성요소형) + 오답 기호 훈련	<input type="checkbox"/> 완료

### 2주차

Day 5	Unit 03 (대립형) + 1주차 오답 정리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6	Unit 04 (역사적 변천형)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7	Unit 05 (문제해결형)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8	Unit 06 (원리·응용형)	<input type="checkbox"/> 완료

### 3주차

Day 9	Unit 07 (전제·확장형) + 2주차 오답 정리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10	Unit 08 (관점 통합형)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11	Unit 09 (복합 도면) — 3지문 풀기	<input type="checkbox"/> 완료
Day 12	Unit 09 (복합 도면) — 2지문 풀기+ 복합지문 오답훈련	<input type="checkbox"/> 완료

### 4주차

Day 13	Unit 10 (변형 도면) — 세트 A·B·C 풀기 + 오답 훈련	<input type="checkbox"/> 완료
--------	---------------------------------------	-----------------------------

Day 14 Unit 01~10 약점 Unit 재훈련 + 3주차 오답 정리  완료

Day 15 Final Test 01 (20분) 시간 제한 + 오답 분석 + 약점 Unit 재훈련  완료

Day 16 Final Test 02 (20분) 시간 제한 + 오답 분석 +약점 Unit 재훈련  완료

---



## 8주 정석 플래너 (주 4일 기준 · 여유 있는 학습)

1~2주차  
*기초 다지기*                      본책 1~4장 정독 + Unit 00-A·B 3회 반복  
  목표: T-R 압착을 30초 안에 완성하는 습관

3~4주차  
*설계도 입문 (Unit 01~05)*                      각 Unit 이틀씩 (1일: 개념+풀이 / 2일: 오답 분석+재풀이)  
  목표: 1문단 읽고 설계도 번호 즉시 판별

5~6주차  
*설계도 심화 (Unit 06~10)*                      각 Unit 이틀씩 (Unit 09 복합·Unit 10 변형 각 3일)  
  목표: 빈칸 추론·문장 삽입 정확도 80% 이상

7주차  
*실전 모의 — Final Test*                      Final Test 01 (20분) + 오답 분석 / Final Test 02 (20분) + 오답 분석  
  목표: 실전 시간 배분 체득 + 오답 유형 파악

8주차  
*약점 보완 + 최종 점검*                      Unit 01~10 약점 재훈련 + 자가진단표 완성  
  + 전체 약점 Unit 재훈련

 사령관에게 — 마지막 지침

"재능은 텍스트를 읽게 하지만, 습관은 텍스트를 지배하게 합니다."

플래너의 완주보다 중요한 것은 한 Unit이라도 완전히 내면화하는 것이다. 속도를 줄이더라도 오답 기

호 표시와 재풀이를 반드시 실행하라.

PART 1 기초

Unit 00-A

## 결속구조 4대 장치

*Cohesion Devices — 문장을 사슬로 잇는 4가지 고리*

### 🔍 Unit 00-A 개요

지문은 무작위 문장의 나열이 아니다. 4가지 결속 장치가 문장들을 사슬처럼 이어 하나의 설계도를 완성한다. 이 장치들을 식별하는 것이 모든 독해의 출발점이다.

- ① 어휘 결속 반복·유의어·반의어·상하의어로 단어 간 연결망 구축
- ② 지시·대용 "이것/그/해당~"으로 앞 정보를 낚아채는 갈고리
- ③ 접속어 순접·역접·인과로 논리 방향 확정
- ④ 생략 숨겨진 주어·전제·비교 대상을 결속구조로 복원

## SECTION 1 4대 결속 장치

### ① 어휘 결속 (Lexical Cohesion)

정의: 동일하거나 의미적으로 연관된 어휘를 반복·변주하여 문장 간 연결을 형성

신호: 반복어, 유의어("정보" → "데이터"), 반의어("디지털" ↔ "아날로그"), 상하의어("조세" → "소득세")

예시: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지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 '정보' = '지식 데이터' 유의어 결속

X-Spot: 유의어를 다른 개념으로 오독 → "정보"와 "데이터"를 각각 다른 대상으로 처리하는 오답

## ② 지시·대용 (Reference & Substitution)

정의: 지시: "이것/그/이러한"으로 앞 정보를 직접 가리킴 / 대용: 앞 정보를 요약·일반화한 새 이름표로 교체

신호: 지시어: "이것/그/해당" / 대용어: "이러한 ~", "이 현상", "해당 기술"

예시: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비행체다." — '이것'='보이저 1호' 지시

X-Spot: 지시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오답 / 대용어를 새 개념으로 오독하는 오답

## ③ 접속어 (Conjunction)

정의: 문장 간 논리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순접(확장), 역접(전환), 인과(수렴) 세 방향

신호: 순접: "그리고/게다가/또한" / 역접: "하지만/반면/그러나" / 인과: "따라서/그러므로/결국"

예시: "디지털은 복원이 쉽다. 따라서 현대 통신의 근간이 되었다." — 인과 수렴으로 결론 도출

X-Spot: "하지만" 이후 내용을 무시하거나, 역접을 순접으로 오독하는 오답

## ④ 생략 (Ellipsis)

정의: 주어·전제·비교 대상이 문맥상 명백할 때 생략. 결속구조로 역설계하여 복원

신호: 생략 주어: 앞 문장 R을 다음 T로 도킹 / 생략 전제: "[왜냐하면]" 복원 / 생략 비교: 대칭 대상 복원

예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올챙이가] 팔짝 뛰어 개구리 됐네." — 주어 '올챙이' 전체 생략

X-Spot: 생략된 주어를 엉뚱한 대상으로 채우는 오답 / 생략된 전제를 무시한 논리 도약 오답

## SECTION 2 실전 지문 훈련

---

### 📍 지문 1 — AI·정보 ★ (입문)

- (1) 현대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 (2) 이것이 부족하면 알고리즘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3) 막대한 정보를 학습해야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 (4) 결국 중요한 것은 정제된 정보의 확보다.

Q1 (2)의 "이것"이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지능
- ② 알고리즘
- ③ 데이터
- ④ 성능
- ⑤ 학습 과정

정답 ③ / 근거: 지시어 "이것"의 앵커 = 바로 앞 문장 (1)의 서술어 목적어 "데이터". (1)에서 T=AI, R=데이터를 먹고 자람 → (2) T=데이터 부족.

Q2 (3)에서 생략된 접속어와 (4)에서 사용된 접속어 유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① 순접 — 역접
- ② 역접 — 인과
- ③ 역접(하지만 생략) — 인과(결국)

④ 인과 — 순접

⑤ 순접 — 인과

정답 ③ / 근거: (3): "막대한 정보를 학습해야 하지만" = 앞의 [데이터 필요]에서 [동등 가치 아님]으로 전환 = 역접 생략. (4): "결국" = 인과 수렴.

📍 지문 2 — 과학기술 ★★ (중급)

(가)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의미한다.

(나) 반면 디지털은 이를 0과 1이라는 불연속적인 부호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다) 이러한 방식은 노이즈에 강하고 복원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라)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현대 통신의 근간이 되었다.

Q3 (나)의 "이를"이 가리키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0과 1이라는 부호

② 아날로그 신호 (연속적 물리량)

③ 디지털 처리 방식

④ 노이즈

⑤ 복원 과정

정답 ② / 근거: 대용어 "이를"의 앵커 = 앞 문장 (가)의 T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이 변환하는 대상 = 아날로그 신호.

Q4 (다)의 "이러한 방식"이 가리키는 것과, (라)에서 사용된 결속 장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아날로그 방식 — 지시
- ② 디지털 변환 방식 — 인과 접속어(따라서)
- ③ 디지털 장점 — 역접
- ④ 아날로그 장점 — 생략
- ⑤ 디지털 방식 — 역접

정답 ② / 근거: "이러한 방식" = 앞 문장 (나) 전체 내용 [디지털 변환 방식]의 대응. (라) "따라서" = 인과 수렴 접속어.

📍 지문 3 — 인문·과학사 ★★★ (고급)

- (1)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 (2) 그는 만유인력 가설을 통해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임을 증명하였다.
- (3)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해당 가설에 반발하였다.
- (4)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전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Q5 (2)의 "그"와 (3)의 "해당 가설"이 가리키는 대상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뉴턴 — 태양 중심설
- ② 뉴턴 — 만유인력 가설
- ③ 과학자들 — 만유인력 가설
- ④ 뉴턴 — 행성 궤도

⑤ 태양 중심설 — 만유인력 가설

정답 ② / 근거: (2) "그" = 앞 문장 주어 [뉴턴] 지시. (3) "해당 가설" = (2)의 목적어 [만유인력 가설] 대응 (명칭만 요약 교체).

Q6 (3)~(4) 사이에 생략된 연결 관계와 그 복원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접 — 가설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지했다
- ② 역접 — 과학자들이 뉴턴의 가설을 수용했다
- ③ 인과 생략 — 절대 공간·시간 전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반발했다
- ④ 지시 — "해당 가설"이 (4)를 직접 가리킨다
- ⑤ 대응 — "해당 가설"이 (4)의 전제를 요약한다

정답 ③ / 근거: (3)과 (4) 사이 접속어 없음. (4)는 (3) 반발의 이유 = 인과([왜냐하면] 생략). 복원: "반발했다. 왜냐하면 절대 공·시간 전제가 어렵기 때문."

 Unit 00-A 총정리 — 4대 결속 장치 한눈 요약

- ① 어휘: 반복·유의·반의·상하의어 → 같은 색? 반대색? 작은 부품?
- ② 지시·대응: "이것"=고정 핀(지시) / "이러한~"=연결 경험(대응)
- ③ 접속어: 순접(↗) / 역접(△) / 인과(→결론)
- ④ 생략: 앞 R → 다음 T 도킹 / [왜냐하면·하지만] 복원



Unit 00-B

## T-R 압착 훈련

테마-레마 엔진(Theme-Rheme Engine) — 문단 전체를 한 줄 엔진으로 압착하라

### 🔍 Unit 00-B 개요

T(테마, Theme: 주제·출발점)가 R(레마, Rheme: 서술·결과)로 이동하는 것이 모든 문장·문단의 엔진이다. 여러 문장에 걸쳐  $T \rightarrow R \rightarrow T \rightarrow R$ 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줄로 압착하면 지문의 핵심이 남는다.

3대 전이 유형: 연쇄형(앞 R = 뒤 T) / 분기형( $T \rightarrow R_1 \cdot R_2 \cdot R_3$ ) / 집중형( $T_1 + T_2 + T_3 \rightarrow R$ )

### SECTION 1 T-R 3대 전이 유형

① 연쇄형 (Chain) 앞 문장의 R이 뒷 문장의 T로 승계

금리가 오르면( $T_1$ ) →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린다( $R_1$ )

쏠린 자금은( $T_2=R_1$ ) →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R_2$ )

투자 위축은( $T_3=R_2$ ) → 결국 고용이 감소한다( $R_3=Final R$ )

압착 결과: 금리 인상(T) → 고용 감소(R)

② 분기형 (Branch) 하나의 T에서 여러 R이 부채꼴로 펼쳐짐

공공재(T) → 비배제성( $R_1$ )

공공재(T) → 비경합성(R<sub>2</sub>)

공공재(T) → 과소공급 경향(R<sub>3</sub>)

압착 결과: 공공재(T) → 3대 성질(R<sub>1</sub>~R<sub>3</sub>)

③ 집중형 (Convergence) 여러 T가 하나의 R로 수렴

시장 실패(T<sub>1</sub>) + 정보 비대칭(T<sub>2</sub>) + 외부효과(T<sub>3</sub>)

→ 정부 개입 정당성(Final R)

압착 결과: 복수 시장 실패(T) → 정부 개입 근거(R)

## SECTION 2 T-R 압착 실전 훈련

훈련 A — 연쇄형 압착 ★ (경제)

- (1)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 (2)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 (3)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 T-R 압착: 고령화(T) → [                      ] → 성장률 둔화(Final R)

Q1 위 지문의 T-R 압착에서 빈칸에 들어갈 중간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 감소 → 수출 증가
- ② 생산 가능 인구 감소 → 노동 생산성 저하
- ③ 투자 위축 → 금리 인하

- ④ 인플레이션 → 구매력 하락
- ⑤ 세금 감소 → 재정 적자

정답 ② / 근거: 연쇄형 압착: (1) 고령화→생산인구↓(R<sub>1</sub>), (2) 생산인구↓(T<sub>2</sub>)→생산성↓(R<sub>2</sub>), (3) 생산성↓(T<sub>3</sub>)→성장률↓(Final R). 중간 마디 = ②.

훈련 B — 분기형 압착 ★★ (법학)

- (가) 저작권은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 (나) 저작권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 송신권 등 다양한 지분권을 갖는다.
- (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공공 영역이 된다.

▷ T 확인: [저작권] ▷ R 목록: R<sub>1</sub>=\_\_\_ / R<sub>2</sub>=\_\_\_ / R<sub>3</sub>=\_\_\_

Q2 위 지문의 분기형 T-R에서 T(주제어)와 R<sub>1</sub>~R<sub>3</sub>(서술 결과)를 올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T=창작물 / R<sub>1</sub>=자동 발생 / R<sub>2</sub>=지분권 / R<sub>3</sub>=공중 송신권
- ② T=저작권 / R<sub>1</sub>=자동 발생(등록 불요) / R<sub>2</sub>=다양한 지분권 / R<sub>3</sub>=사후 70년 소멸
- ③ T=저작권자 / R<sub>1</sub>=등록 의무 / R<sub>2</sub>=지분권 / R<sub>3</sub>=사후 70년
- ④ T=창작물 / R<sub>1</sub>=복제권 / R<sub>2</sub>=배포권 / R<sub>3</sub>=공중 송신권
- ⑤ T=저작권 / R<sub>1</sub>=발생 시점 / R<sub>2</sub>=등록 방법 / R<sub>3</sub>=소멸 조건

정답 ② / 근거: 분기형: T=[저작권]에서 세 R이 펼쳐짐. R<sub>1</sub>=자동 발생(가), R<sub>2</sub>=지분권 보유(나), R<sub>3</sub>=사후 70년 소멸(다). T=창작물(①④)은 오답.

훈련 C — 집중형 압착 ★★ (사회)

- (1) 교통 혼잡은 개인이 도로를 이용할 때 타인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 (2) 공해 물질 배출은 주변 주민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한다.
- (3) 이러한 외부 불경제 문제들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압착:  $[T_1+T_2] \rightarrow [Final R]$

Q3 위 지문의 집중형 압착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통 혼잡(T) → 공해 배출 증가(R)
- ② 시장 가격(T) → 외부 비용 반영(R)
- ③ 교통·공해( $T_1+T_2$ ) → 정부 직접 해결 필요(R)
- ④ 교통 혼잡·공해(외부 불경제,  $T_1+T_2$ ) → 시장의 자율 해결 불가(Final R)
- ⑤ 외부 불경제(T) → 시장 가격 상승(R)

정답 ④ / 근거: 집중형: (1)교통혼잡( $T_1$ )+(2)공해( $T_2$ ) → (3)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Final R). ③은 "정부 직접 해결"로 지문에 없는 내용.

SECTION 3 변곡점 탐지 — 핸들을 꺾는 순간

💡 변곡점이란?

T-R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하지만/그러나/반면" 뒤가 진짜 필자의 주장이다. 변곡점 이후의 R이

출제 지뢰밭이다.

탐지 신호: 하지만 / 그러나 / 반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전술: 변곡점(△) 표시 → 앞 T-R은 "배경", 뒤 T-R이 "본론" → 뒤 R에 X-Spot 선점

### 변곡점 훈련 지문 ★★

(가) 재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나) 하지만 동료 간 소통 부재로 협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동기 협업 도구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변곡점: (나) "하지만" = △. 이후 내용이 핵심.

Q4 위 지문의 T-R 압착 결과와 출제 예상 X-Spot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택근무(T) → 효율 증가(R) / X-Spot: 효율 증가 여부

② 재택근무(T) → [효율 ↑ · 협업 ↓] → 도구 도입(Final R) / X-Spot: "협업 도구가 소통 부재를 해결한다" 인과 확인


③ 협업 도구(T) → 재택 확대(R) / X-Spot: 도구 종류

④ 소통 부재(T) → 재택 폐지(R) / X-Spot: 재택 폐지 여부

⑤ 재택근무(T) → 출퇴근 절약(R) / X-Spot: 시간 절약량

정답 ② / 근거: 변곡점 △ 이후: [협업 ↓] → [도구 도입]. Final R = 도구 도입. X-Spot = 변곡점 이후 인과 관계.

①은 변곡점 이전만 반영.

 Unit 00-B 총정리 — T-R 압착 3공정

1공정 전이 유형 판별: 연쇄형(꼬리물기) / 분기형(부채꼴) / 집중형(수렴)

2공정 T-R 사슬 그리기: 각 문장의 T와 R에 표시 후 한 줄로 압착

3공정 변곡점( $\Delta$ ) 탐지: 이후 R = 본론·핵심 / X-Spot 선점

★ "4대 결속 + T-R 압착이 모든 설계도의 기반이다. 이것 없이는 Unit 01~10를 열 수 없다."

## SECTION 4 T-R 전체지문 요약법

---

### 전체지문 요약법이란?

문장 단위 T-R 압착(SECTION 1~3)을 지문 전체로 확장하는 최종 공정이다. 아무리 긴 지문도 결국 하나의 화살표( $T_1 \rightarrow \dots \rightarrow \text{Final R}$ )로 압착된다. 이것이 출제자가 묻는 "정답의 보석"이다.

공식: *이전 문단의 R을 다음 문단의 T로 삼아, Final R을 향해 정보를 누적시킨다.*

### 3단계 요약 공정

#### 1단계 입구 찾기 (Initial T)

1문단에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인 "가장 거대한 주어"를 포착한다. 이것이 요새의 기초(Foundation)다.

보통 1문단 첫 문장의 주어가 Initial T다.

#### 2단계 에너지 추적 (R-T Link)

문단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새롭게 알아낸 게 뭐야?(R)"를 묻고, 다음 문단 첫 줄에서 "그게 어떻게 다시 쓰여?(T)"를 확인한다.

*옆으로 가면 연쇄(Chain) / 위로 쌓이면 집중(Focus) / 양옆으로 벌어지면 분기(Split)*

#### 3단계 최종 하중 판별 (Final R)

지문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R들이 모여 만든 "최종적인 정보의 무게"를 산출한다. 이것이 주제 찾기·제목 추론 문제의 정답이다.

📍 실전 시뮬레이션 — 근대 건축 (집중+연쇄+분기 복합)

(1문단) 19세기 근대 건축의 핵심 패러다임은 기능주의( $T_1$ )였다. 이는 건축의 형태가 용도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로, 장식성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학적 미학( $R_1$ )을 낳았다.

(2문단) 이러한 공학적 미학( $T_2=R_1$ )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신재료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인장 강도의 철근과 압축 강도의 콘크리트가 결합하여 구조적 안정성( $R_2$ )과 넓은 평면 공간( $R_3$ )이라는 두 성과를 낳았다.

(3문단) 확보된 구조적 가능성( $T_3=R_2+R_3$ )은 현대 건축을 두 갈래로 분화시켰다. 경제성을 추구한 오피스 빌딩( $R_4$ )과 도시 상징을 추구한 랜드마크 건축( $R_5$ )이 그것이다.

(4문단) 결국 이러한 건축적 분화( $T_4=R_4+R_5$ )는 단순한 양식 변화를 넘어 도시 공간의 재구성(Final R)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낳았다.

▷ 압착 궤적: [기능주의] → [공학적 미학]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건축 분화] → [도시 재구성]

☑ 3단계 공정 적용 해설

1단계 Initial T: "기능주의( $T_1$ )" — 1문단 첫 문장의 주어. 지문 전체 논의의 기초.

2단계 R-T Link:  $R_1$ (미학)→ $T_2$ ,  $R_2+R_3$ (안정성+평면)→ $T_3$ ,  $R_4+R_5$ (분화)→ $T_4$ . 조인트마다 앵커 마킹.

3단계 Final R: "도시 공간의 재구성" — 마지막 문단에서 모든 R이 수렴된 최종 결론. 주제 문제 정답.

1문단→2문단 연쇄형 + 2문단 내 집중형 + 3문단 분기형. 복합 구조지만 Final R은 하나.



훈련 — 직접 압착해보기 ★★★ (인문·사회)

(1문단)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적 선택의 기준이 된다.

(2문단) 이러한 결과 중심 사고는 개인의 권리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문단) 롤스는 이에 맞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안한다. 그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등 원칙이 진정한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 3단계로 압착하라: T<sub>1</sub>=? / R-T Link=? / Final R=?

Q5 위 지문의 T-R 전체 압착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리주의(T<sub>1</sub>) → 최대 행복 원칙(R<sub>1</sub>) → 소수 희생 정당화(Final R)
- ② 개인 권리(T<sub>1</sub>) → 공리주의 비판(R<sub>1</sub>) → 롤스 차등 원칙(Final R)
- ③ 공리주의(T<sub>1</sub>) → 결과 중심 + 소수 희생 비판(R<sub>1</sub>) → 롤스의 차등 원칙·공정 정의(Final R)
- ④ 최대 다수(T<sub>1</sub>) → 최소 수혜자 보호(R<sub>1</sub>) → 공리주의 폐기(Final R)
- ⑤ 공정 정의(T<sub>1</sub>) → 공리주의 비판(R<sub>1</sub>) → 최대 행복 원칙(Final R)

정답 ③ / 근거: T<sub>1</sub>=공리주의(1문단 주어). R<sub>1</sub>=결과 중심 사고 + 소수 희생 비판(2문단). T<sub>3</sub>=이에 맞서(=R<sub>1</sub> 앵커).  
Final R=롤스 차등 원칙·공정 정의. ①은 Final R이 중간 단계, ②는 T<sub>1</sub> 오류.

 Unit 00-B 최종 완결 — T-R 4공정 체계

SECTION 1 T-R 3대 전이 유형 — 연쇄·분기·집중

SECTION 2 T-R 압착 실전 — 경제·법학·사회 지문

SECTION 3 변곡점 탐지 — △ 이후가 본론

SECTION 4 전체지문 요약법 — 3단계 공정

★ 이 4공정이 설계도 8개의 엔진실이다.

## 사령관의 3대 실전 도구

"읽는 즉시 가동하라" — 펜 끝이 춤을 추는 순간, 지문은 설계도가 된다.

### 🛡 브리핑의 목적

PART 1에서 결속구조와 T-R 압착을 익혔다면, 이제 그것을 펜으로 즉각 시각화하는 3가지 물리적 도구가 필요하다. 8대 설계도(PART 2)를 열기 전, 이 도구들을 먼저 손에 익혀야 한다. 눈으로만 읽는 것은 구경이다. 펜 끝이 움직이는 순간 전투가 시작된다.

### 도구 ① 펜의 조인트 (Jointing) — 관계의 시각화

#### ▶ 신호어 & 표식

△ (세모) "하지만 / 반면 / 그러나 / 달리" → 대립형·문제해결형 도면 가동 신호

→ (화살표) "따라서 / 때문에 / 인해 / 결국" → 인과·과정·단계형 도면 가동 신호

①② (번호) "첫째 / 둘째 / 또한 / 게다가" → 구성요소·분기형 도면 가동 신호

#### ▶ 사용법

접속어·전환어를 만나는 순간, 읽기를 멈추지 않고 펜으로 기호를 치면서 동시에 해당 설계도를 머릿속에 로딩한다. △는 왼쪽 여백에 크게, →는 해당 문장 위에, ①②는 항목 앞에 표시한다.

#### ▶ 효과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 때, 이 표식을 보고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0.1초 만에 찾아낸다. 표식이 없는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훑는 시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도구 ② 앵커 마킹 (Anchor Marking) — 문단 간 바톤 연결법

### ▶ 신호어 & 표식

밑줄 (R) 1문단 끝 핵심어(R) → 다음 문단으로 넘기는 바톤

연결선 (T) "이러한 ~ / 이 원리는 / 해당 ~" → 앞 문단 R을 받는 T 지시어

[] (앵커) 문단 첫·끝 최중요 명사 → 설계도의 하중점 고정

### ▶ 사용법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R(결과·요약어)에 밑줄을 긋는다. 다음 문단 첫 문장의 지시어("이러한 ~")와 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이 T-R 사슬이 끊기지 않았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한다.

### ▶ 효과

긴 지문을 읽다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라고 멍해지는 인지 단절(cognitive cut-off) 현상을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문단 이동 시 설계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 도구 ③ 괄호 압착 (Bracket Compression) — 노이즈 격리법

### ▶ 신호어 & 표식

() 괄호 수치·통계·예시·나열 부연 → T-R 뼈대에서 분리

적용 기준 "예컨대 / 가령 / 예를 들어 / 즉" → 이하 내용 전체 괄호 처리

복원 기준 정답 확인·추론 필요 시 → 괄호 안 데이터 호출

### ▶ 사용법

구체적인 수치, 나열된 예시,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 과감하게 (괄호)를 쳐서 시각적으로 격리한다. 괄호

밖의 뼈대(T-R)만 남겨 8대 설계도의 형상을 유지한다. 예시가 궁금할 때만 괄호 안을 들여다본다.

▶ 효과

정보 밀도가 높은 지문에서 뇌 과부하를 방지한다. 만연체 문장이 [주어-서술어] 두 단어로 압착되어 T-R 엔진이 즉시 보인다.

🔍 실전 가동 예시 — 학생의 시험지 마킹 샘플

(가) 결국 이러한 [인플레이션](앵커 ←밀줄)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


↳ 앵커 마킹 "인플레이션" = 1문단 끝 R. 밀줄 후 다음 문단 첫 지시어와 연결선.

(나) [이러한 가치 변동](T, 연결선←)(예컨대 금값의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같은)←괄호압착 여러 현상을 동반한다. 하지만(△)←조인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 괄호 압착 "예컨대 금값의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같은" → () 처리. T-R 뼈대: [가치 변동(T)] → [현상 동반(R)]

↳ 펜의 조인트 "하지만" → △ 표시. 대립형 도면 즉시 로딩. 이후 [디플레이션] 앵커 확정.

도구	언제 쓰나	어떻게	왜
① 조인트	접속어·전환어 등장 즉시	△/→/① 기호 표시	설계도 위치 0.1초 검색
② 앵커	문단 끝 R → 다음 T 이동	밀줄 + 연결선	인지 단절 방지
③ 괄호	"예컨대/즉" 이하 부연	() 괄호 처리	T-R 뼈대 확보

 연습 규칙

아래 지문을 읽으면서 펜(또는 형광펜)으로 3대 도구를 직접 표시하라.

- ①  $\Delta/\rightarrow/\textcircled{1}$  접속어·전환어에 조인트 기호 표시
- ② 밑줄 각 문단 끝 R(핵심어)에 밑줄 + 다음 문단 T와 연결선
- ③ () "예컨대/즉/가령" 이하 부연·예시 괄호 처리

 연습 지문 — 열역학 제2법칙

(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이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하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가역 과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다.

(나) 이 법칙은 에너지 변환의 비효율성도 설명한다. 예컨대 열기관이 열에너지를 역학적 일로 변환할 때, 모든 열이 일로 전환될 수 없고 반드시 일부는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열기관의 효율은 이론적으로 100%에 도달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생물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다. 즉 세포 내 ATP 합성, 단백질 접힘과 같은 고도의 질서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물은 더 많은 엔트로피를 환경에 방출하므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한다.

▶ 여기에 직접 마킹하라:  $\Delta/\rightarrow/\textcircled{1}$  / 밑줄 / () 괄호

정답 마킹 해설

(가) 조인트·앵커

"에 따르면" → → (인과 연결). 끝 R =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에 밀줄. → (나) "이 법칙" 연결선.

(나) 괄호 압착 + 조인트

"예컨대 열기관이 ~방출된다" → () 괄호 처리. "따라서" → → 조인트. 끝 R = "100%에 도달 불가"에 밀줄.

(다) 조인트 + 괄호 압착 + 앵커

"그러나" → △ (대립 전환). "즉 세포 내 ATP 합성, 단백질 접힘과 같은" → () 괄호. "다만" → 조건 칼날 표시. Final R = "전체 엔트로피 여전히 증가"에 밀줄.

 브리핑 핵심 수칙 3가지

수칙 1 3대 도구는 읽기가 끝난 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즉시, 동시에 가동한다.

수칙 2 △가 보이면 설계도가 전환된다. 이후 내용이 진짜 주장이다.

수칙 3 괄호 안은 오답의 재료다. 정답은 괄호 밖의 T-R 뼈대에 있다.

*"펜 끝이 춤을 추며 지문의 뼈대를 발라내야 한다. 3대 도구가 가동되는 순간, 지문은 검은 글자 더미에서 투명한 설계도로 변한다." — 은둔설계자*

## 📄 도면 구조 분석표 사용법 — 시범 예시

이 페이지는 Unit 01~10 학습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면 구조 분석표 작성 가이드입니다.  
아래 지문을 읽고, ①작성 요령 → ②직접 작성 연습 → ③완성 샘플 순서로 익히십시오.

### ① 도면 구조 분석표 — 각 항목 작성 요령

항목별 작성 기준	
도면 유형	지문 전체가 무엇을 하는 글인지 한 단어로. A와 B를 체계적으로 대조하면 → 대립·비교형. 단계별 공정이면 → 과정·단계형. 원인과 해법이면 → 문제해결형.
1문단 앵커	(가) 단락에서 T(화제)와 R(핵심 구분)을 압착. "무엇이 → 어떻게 나뉘는가"를 한 줄로 요약. 이 한 줄이 전체 글의 설계도 번호를 결정한다.
T-R 결속 모델	전체 단락 흐름을 T→R 연쇄로 도식화. 각 단락의 R이 다음 단락의 T가 되는 사슬 구조를 파악. 대립형은 "분기형", 단계형은 "연쇄형"이 일반적.
핵심 조인트 위치	두 대립항이 정면 충돌하거나 설계도의 핵심 전환이 일어나는 단락. 문장 삽입·빈칸 추론·오답 함정이 집중되는 X-Spot.
최종 하중	글이 마지막에 독자에게 남기는 결론 메시지. (마) 단락의 R이 최종 하중. "결국 이 글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로 확인.



② 시범 지문 난이도: ★★★

(가)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권력을 소유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두 관점은 권력의 본질, 작동 방식, 저항 가능성에서 근본적으로 갈린다.
(나)	소유론적 관점에서 권력은 특정 주체가 보유하는 자원이다. 국가, 자본, 무력이 대표적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정의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이 틀에서 권력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하향 전달되며, 저항은 동등한 권력을 획득하거나 기존 권력을 빼앗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다)	관계론적 관점에서 권력은 특정 주체가 독점할 수 없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사회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으며,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권력은 지식, 담론, 규범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효과를 재생산한다. 이 관점에서 저항도 권력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 내부의 균열에서 생겨난다.
(라)	두 관점의 핵심 쟁점은 권력의 가시성이다. 소유론은 권력을 눈에 보이는 강제력과 자원의 문제로 파악한다. 반면 관계론은 권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은 보이지 않을 때라고 본다. 규범이 내면화되어 저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 즉 지배가 동의로 위장될 때 권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마)	두 관점은 상호 보완적이다. 소유론은 구조적 불평등과 물리적 강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관계론은 일상 속에 침투한 미시 권력과 주체 형성 과정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다. 권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자원 분배와 미시적 규범 작동 양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도면 구조 분석표 — 지문을 읽은 후 직접 채우시오

도면 유형	
1문단 앵커	
T-R 결속 모델	
핵심 조인트 위치	
최종 하중	

### ③ 완성 샘플 — 정답 및 해설

#### 도면 구조 분석표 — 정답

도면 유형	대립·비교형 (Contrast Map)
1문단 앵커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T) → 소유론(자원·강제)과 관계론(그물망·담론)으로 근본 분기(R)
T-R 결속 모델	분기형 — (가) 두 관점 제시 → (나) 소유론 전개[베버: 의지 관철] → (다) 관계론 전개[푸코: 담론·규범] → (라) 핵심 쟁점: 가시성 대조 → (마) 통합: 거시+미시 병행
핵심 조인트 위치	(라) — 권력의 가시성 직접 대조. 소유론=보이는 강제, 관계론=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함. ★ 문장 삽입·빈칸 출제 핫스팟
최종 하중	거시적 자원 분배(소유론)와 미시적 규범 작동(관계론)을 함께 볼 때만 권력의 전모가 드러난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 항목별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1문단 앵커는 반드시 (가)에서 추출. "두 가지로 나뉜다"는 표현이 대립형의 신호탄. T=권력 시각, R=소유론 vs 관계론 분기.
포인트 2	T-R 결속 모델의 핵심: (나)와 (다)는 각 관점의 전개이므로 병렬 구조. (라)에서 둘이 정면 충돌 → 이 단락이 곧 X-Spot.
포인트 3	최종 하중은 단순 요약이 아니라 글의 주장. (마)의 "함께 보아야 한다"는 통합 제안이 이 글의 결론이자 출제자가 심어둔 정답 근거.